

나주시 청년 임대주택 35호 추가 공급

관리비만 내고 4년까지 거주 가능
18~45세 취업 청년 주거 문제 해결
28일까지 모집...세대원 2명 우선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나주에 일자리를 얻어 전입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일환이다.

전국 최초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2023년에는 송월동·삼영동 부영아파트 30호, 지난해 70호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송월동 부영아파트 35호를 추가로 확보·공급한다.

이번에는 69.4㎡(옛 21평대) 15호, 82.6㎡(옛 25평대) 20호를 공급한다. 면적이 넓은 25평대의 경우 전입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나주가 아닌 다른 사·군·구에 주소를 두고 아파트 입주일 즉시 전입 가능한 청년이다. 또 나주시 관내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써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나주시가 '취업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지난해 취업청년 임대주택 입주설명회 모습.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 등 세대 구성원이 많은 가구,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 또는 일할 예정인 청년에게는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기본 2년 계약으로 1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8일까지이다.

시는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이 나주에서 새로운 직장, 삶의 터전을 마련한 타 지역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풍족한 문화생활 혜택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안심 돌봄, 명품 교육까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을 지원받아 임리 유학마을에 모듈러 주택 10동을 조성했다. 장흥 농산어촌 유학마을 전경.

〈장흥군 제공〉

장흥 장평 '농산어촌 유학마을' 10동 준공

임리초등학교에...34명 거주

학령인구 유입을 위해 조성된 장흥 농산어촌 유학마을 준공식이 지난 7일 장흥군 옛 장평 임리초등학교에서 열렸다.

10가정 34명이 거주하는 임리 유학마을은 지방

소멸대응기금 30억을 지원받아 모듈러 주택 10동을 지어 조성됐다.

2022년 사업비 교부, 2023년 기존 건물 철거와 설계공모, 2024년 실시설계, 전남도 계약공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됐다.

준공식에는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정행중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유학가정, 마을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에서 이천영 장흥군 부군수는 "유학마을은 지역의 작은학교를 살리고, 인구 유입을 위한 간절함과 함께 시작했다"며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성공사례를 이어받아, 내년 3월까지 장평면 우산리에 유학마을 6세대를 추가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화순군 '만원 주택' 청년형 경쟁률 11.4대 1

40가구 모집에 458명 몰려

신혼부부형 14일까지 추가모집

청년인구 유입 정책으로 주목 받는 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이 시행 3년차를 맞은 올해에도 청년형 경쟁률이 11.4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청년형 40가구 모집에 458명이 지원해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혼부부형 60가구 모집에는 40명이 지원해 8~14일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전체 지원자 가운데 화순군 역외 거주자는 200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나이대별

로는 19살 이하가 2명, 20~29살 242명, 30~39살 205명, 40~49살 49명으로 나타났다.

화순군은 오는 30일 화순군청 누리집을 통해 추첨 대상자와 추첨일을 공고할 계획이다.

화순군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1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임대료만 받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아 최근 타 지자체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3년 차에 접어든 만원 임대주택사업 지원자가 올해도 500명 가까이 몰렸다"라며 "청년들이 화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군 7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만 19세 이상 성인 900명 대상

담양군이 오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지역 건강통계 산출을 위한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군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표본 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전문 조사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여부를 포함해 총 19개 영역, 169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담양군의 건강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지역 보건정책 수립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 건강지표 산출을 위해 표본 가구로 선정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조사 과정은 통계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강진군 스마트 낚시 관광 플랫폼 구축

지역문제 해결 공감e가득 공모 선정

2억2000만원 들여 12월까지 완료

강진군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는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공감e가득)' 공모에서 '스마트 낚시 관광 플랫폼 구축' 과제로 최종 선정됐다.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국 39개 지자체 중 최종 5곳에만 주어지는 성과로, 강진군은 올해 들어 서른일곱 번째 국비 확보다.

강진군이 제안한 과제는 낚시 관광을 핵심으로 한 '스마트 낚시 관광 플랫폼' 구축으로, 실시간 선박 위치 파악과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지역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강진군은 전자승선명부 시스템을 활성화해 바다낚시어선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

고, 낚시객 위치 확인을 위해 LTE라우터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인근 선박, 해양경찰, 해양구조대가 즉시 출동해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낚시 관광지로 거듭난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이 주관하고, 민간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모델로 진행된 다. 오는 12월까지 8개월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억2000만원이며, 이 중 2억원은 국비로 나머지 2000만원은 군비로 충당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역 어업인과 상가, 관광객이 모두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해양관광의 중심지로서 강진의 위상을 한층 높여갈 방침이다"라며 "이제는 낚시뿐만 아니라 강진에 다양한 특산물, 놀거리 등 즐겨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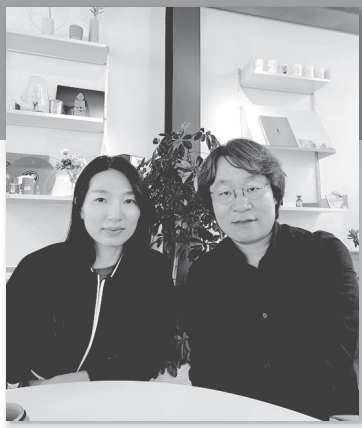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